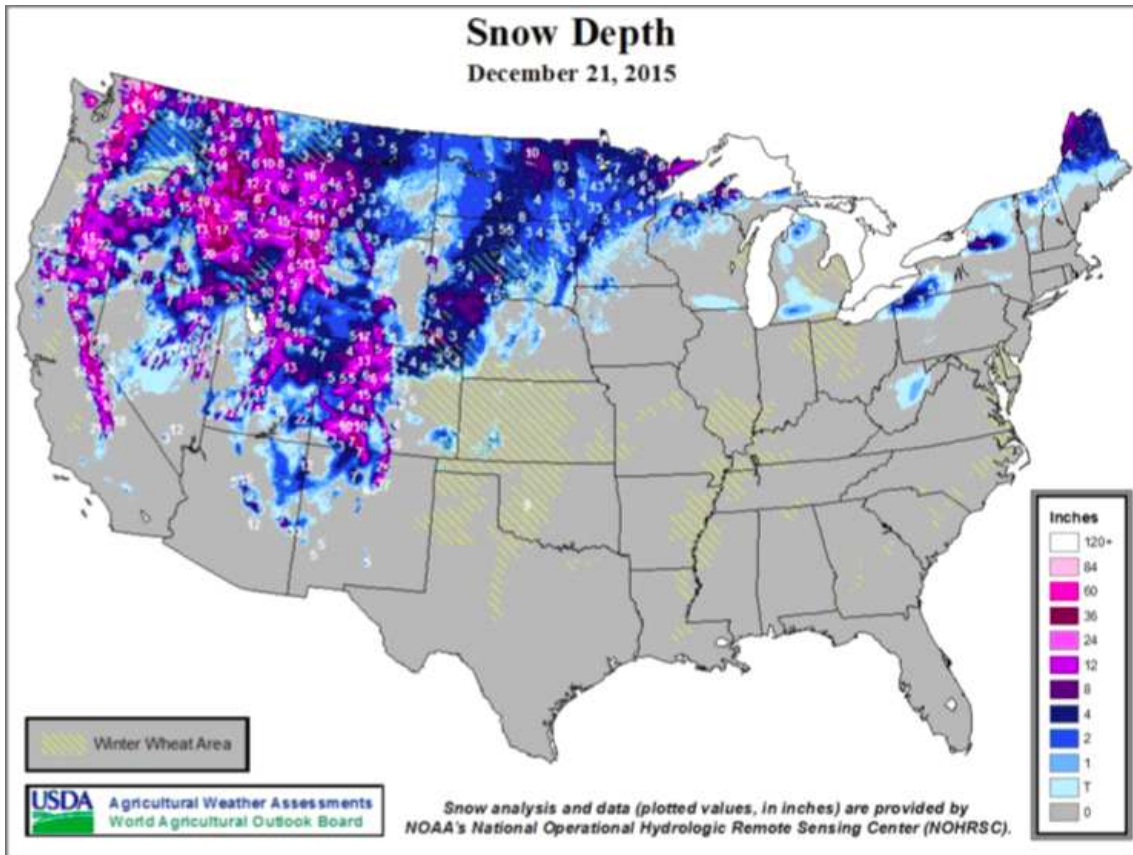




12월 22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2, No. 51)

□ 미국 기후 현황(12/13~12/19)

북서부에서는 강한 비바람이 몰아친 가운데 가뭄이 상당부분 해소되었다. 오레곤 서부 지역에서는 많은 비로 인해 침수피해가 발생했고, Sierra Nevada 산맥 전역에서도 비가 내렸다. 북서부 내륙 지역에서도 비가 내렸고 겨울 농작물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 주었다. 대평원 북서부 지역 일대에는 눈이 내렸는데 눈이 쌓이면서 단열재 역할을 한 덕분에 겨울밀의 냉해 피해에 대한 걱정을 덜어 주었다. 미시시피 계곡 중부 지역 일대에서는 많은 양의 비가 내려 침수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남동부 지역에서는 비로 인해 막바지 수확 작업이 다소 지연되기도 했다. 동부 일대에서는 평년보다 15°F 이상 기온이 높은 이례적인 고온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반면, 서부의 캘리포니아 등 일부 지역에서는 비교적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 농업 현황 요약(12/14~12/20)

동부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평년보다 기온이 높은 날이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북동부 일대에서는 평년보다 9°F 이상 기온이 높은 날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달리 남서부에서는 평년보다 기온이 낮은 날이 이어지고 있다. 해안 지역을 제외하고는 영하의 날씨를 기록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평년 수준의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옥수수 재배지역 서부와 태평양 연안 북서부, 걸프만 일대에서는 평년보다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

□ 세계 기후 현황(12/13~12/19)

■ 유럽: 전반적으로 따뜻한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지중해 연안 일대에서는 일시적인 가뭄이 있었고, 북부지역에서는 비가 내렸다. 대서양 상공을 지나는 기류의 영향으로 프랑스 북부와 폴란드, 발틱 연안 국가들에서는 5~3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잉글랜드, 영국 북부, 노르웨이 등 보다 북쪽 지역에서는 25~105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반면,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져 겨울 작물의 파종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11월 5일 이후 Castilla La Mancha 등 스페인 중부 지역에서는 3mm의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 30년간 평균 강우량의 5% 수준에 불과하다. 이탈리아 북부의 Po River Valley 일대의 강우량은 17mm로 역시 같은 기간 평균 강우량의 15% 수준에 그치고 있다. 북대서양에서 유입되는 따뜻한 공기의 영향으로 유럽 전역에서 대체적으로 평균보다 3~7°C 정도 기온이 높은 날이 이어지고 있다.

■ 구소련(서부): 이례적으로 따뜻한 날씨로 인해 예년처럼 눈이 농경지를 덮고 있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북부, 러시아 남부 지역에서는 3~20mm 내외의 눈이 내렸다. 하지만, 이들 지역에서는 평년보다 기온이 2~5°C 정도 높아 눈이 농경을 덮어주는 단열 역할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Volga 지역과 중부 지역에서는 주 후반 2~10cm 정도의 눈이 내렸다. 하지만, 이같은 따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역 전역에서 재배되고 있는 겨울밀은 휴면기에 접어들었다.

■ 호주: 서부와 남동부 일대에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겨울 작물의 수확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밀과 보리의 생육상태도 좋은 편이다. 서호주 일대 및 뉴 사우스 웨일즈 남부의 겨울작물 수확작업은 막바지에 이르렀고, 호주 남부와 빅토리아 일대에서도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그밖의 밀 재배지역인 뉴 사우스 웨일즈 북부와 퀸즐랜드 남부에서는 2~25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면화 등의 재배지역에서는 기온이 대체로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아르헨티나: 대부분의 주요 곡창지역에서 비가 내렸다. 서부의 Buenos Aires 서쪽 지역과 La Pampa, Cordoba 등에서는 25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Buenos Aires 남부에서도 비가 내려 농작업이 다소 지연되었다. 반면, Santa Fe 북부 등 북동부 지역에서는 50~200mm 내외의 많은 비가 내렸다. 북서부 일대의 대두와 옥수수, 면화 재배지역에서는 10~5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지난 한주간 남주와 서부 곡창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보다 2°C 정도 높은 날이 이어졌다. 중부지역의 경우 주 초반 낮 최고기온은 30°C 후반까지 올랐고, 주 후반에 비가 오면서 다소 시원해졌다. 아르헨티나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 12월 17일 기준 옥수수와 대두의 파종률은 각각 69%, 78%였고, 밀의 수확률은 54%였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13%p 낮은 수준이다.



■ 브라질: 남부의 주요 곡창지역에서는 지난 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비가 내렸다. Rio Grande do Sul과 Santa Catarina, Parana 일대에서는 50~10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이들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평년 수준을 회복했다. Parana 북부 지역에서도 10~5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Mato Grosso, Bahia 서부 일대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0°C 후반까지 올랐다. 북동부 내륙지역에서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강우량이 평년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부와 서부 일대에는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이상 기온이 기록되기도 했다.